제주 청소년 사중주단 실내악으로 책방 응원

다온앙상블 지난달 첫발
그림동화 낭독과 연주회
이달엔 이듬해봄서 진행
"음악 매개로 서점 활성화"

연주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제주에 흩어진 책방을 응원하는 음악회를 이어간다. 지난달 31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그림책방 노란우산에서 첫 무대를 열었던 다온앙상블이다.

제주 청소년 실내악단 다온앙상블은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실기 강사인 플루티스트 강은정씨가 단장을 맡고 있다. 청소년들이 연주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음악의 가치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 5월 4중주단을 꾸렸다. 현재 다온앙상블은 바이올린 오진영, 첼로 문석현, 플루트 문석환, 클라리넷 김준영으로 구성됐다.

다온앙상블의 책방 응원 콘서트는 음악을 매개로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시간이다. 동네 곳곳에 들어서며 지역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작은 서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기획됐다.

8월에 첫 발자국을 찍은 책방 콘서트는 실내악 연주에 그림동화 낭독이 더해지며 독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다온앙상블은 이날 하이든의 '런던 트리오 제1번' 등을 연주하며 청중들과 음악이 흐르는 책의 향기를 나눴다.

지난달 31일 제주 청소년들로 구성된 사중주단 다온앙상블이 그림책방 노란우산에서 책방 응원 콘서트를 펼치고 있다.

두 번째 책방 콘서트는 이달 20일 오후 7시 '이듬해봄'(대정읍 하모백사로29번길 6-6)에서 진행된다. 다온앙상블은 매달 한차례 책방을 찾아 감성 가득한 실내악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강은정 단장은 "앞으로 책방 응원 콘서트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자그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문의 010-3583-2175. 진선희기자

공연장엔 벌써 두둥실 보름달 뜨네

한 달에 한 번 꼴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허튼굿을 펼치고 있는 전통예술공연개발원.

오늘 허튼굿 '산도롱 풍류'
앉은반 설장구·입춤·대금
제주굿 접목 창작춤도 준비

넉넉한 한가위 보름달이 공연장에 먼저 떠오른다. 매달 한차례 '잔치형 공연예술'인 '허튼굿'을 올려온 제주의 전통예술공연개발원이 추석 명절 분위기를 미리 돋우는 무대를 빚는다. 이달 4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산도롱 풍류'란 이름으로 9월 허튼굿을 펼친다.

이번 허튼굿의 제목인 '산도롱'은 '조금 차거나 선선한 느낌이 있다'는 뜻을 지닌 제주 방언 '산도롱(산도록)허다'에서 따왔다. 여름 무더위가 차츰 물러서는 계절에 맞춰 붙여졌다.

이날 단원들은 무대와 관객 사이에 놓인 벽을 걷어내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자리를 꾸민다. 앉은반 설장구로 문을 연 뒤 한국춤의 기본인 입춤, 가을의 기운이 전해지는 대금 정악 독주곡인 '청성곡', 제주굿 장단에 스트릿 댄스를 접목한 안지석 단원의 창작춤 등이 잇따른다.

디지털 미디어, 제주큰굿 등 전통과 현대 기술의 만남으로 다양한 공연을 벌여온 전통예술공연개발원은 이번에도 그같은 시도를 통해 젊은 층과 호흡하려 한다. 전통예술공연개발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마음까지 넉넉해지길 바라는 바람으로 준비한 공연"이라고 했다. 문의 064)722-0129.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판 <168>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ᄋᆞ멩이가, "하르바님- 족은 바위덜은 바당 소곱이서 이디저디 잘도 들락 거리는 셍이라예-."
좀네는, "게메이! 욕은 거, 두린 거 홀나위 읏이 족은 바위덜 ᄆᆞᆫ좀도 안 자곡 이레주짝 저레주짝 ᄒᆞ염실거여."ᄒᆞ난
하르바지가 ᄀᆞᆫ는다. "족은 바위덜이 좀도 안 자멍 들러퀴는 동안 바위덜이 더 하영 모돠젓주. ᄯᆞᆫ바위덜은 솔짹이 ᄋᆞ라 식솔덜을 ᄃᆞ랑오기도 ᄒᆞ엿주. 이제 성산 앞바당 물 소곱은 ᄇᆞᆰ아졋고 바릇궤기덜이영 메역덜은 물 소곱서 펜고이 ᄆᆞ심껏 잘덜 살멍 이섯주."

*** 제주어 풀이**

*잘도 들락거리는 셍이라예 : 자꾸 왔다 갔다하는 모양이에요.
*게메(게뭬) ; <느낌>'그래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따위의 뜻을 지닌 말.
*주짝 : <움직>갑자기 우뚝 일어나는 꼴. 물건의 윗머리 부분이 두드러지게 오뚝한 꼴.
*솔짹이(솔짝, 솔짝이) : <어찌>살짝. 살그머니.
*ᄋᆞ라 식솔덜을 ᄃᆞ랑오기도 ᄒᆞ엿주 :여러 식구들을 데려오기도 하였지.
*ᄇᆞᆰ아졋고 : 밝아졌고. *펜고이 : <어찌>편하게. 안락하게.
*ᄆᆞ심껏 잘덜 살멍 이섯주 : 마음 편히 잘들 살고 있었지.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이름>:대이름씨(대명사)/<셈>:셈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소>:때가림소/<익은말>:익은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1991)

문화가 쪽지

이소영 시인 두 번째 동시집

제주 이소영 시인이 23년 만에 두 번째 동시집 '파도야, 바다가 간지럽대'(아동문예 출판사)를 묶어냈다.

이 시인은 그동안 '어느 기우뚱대던 날의 삽화', '소금꽃' 등 시집을 두 권 펴냈지만 동시집은 못냈다. 바닷가에서 놀던 네 살 손자의 말을 따와 신작 동시집 표제를 단 시인은 "꿈 많은 어린이들과 동심을 잃지 않은 어른들의 길동무가 되길 소망한다"며 "동시집 속 이야기들이 가끔 어느 가슴에서 살아나 누군가의 바쁜 일상에서 잠깐 쉬어가는 마음의 정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유경 그림.

박희순 시인 제주어 동시집

박희순 시인이 제주어 동시집 '바다가 튕겨낸 해님'(청개구리 출판사)을 펴냈다.

이 책은 오래전 출간한 첫 동시집을 새롭게 다듬고 제주어 동시를 추가해 묶은 개정판이다. 박 시인이 "선물받은 하루에 대한 답장"이라고 소개한 동시집으로 제주어 동시 16편 등 60여편이 수록됐다. 제주의 자연미와 삶의 아름다움이 풍기는 시편들을 통해 동심 가득한 시선으로 일상의 의미와 재미를 재발견해 보여준다. 이 중에서 '벽부수기'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동시다. 신기영씨가 그림을 맡았다.

이동수 세 번째 동화집 발간

초등교장을 지낸 제주 아동문학가 이동수 작가가 세 번째 동화집 '순간 포착의 우정'(자청비 출판사)을 펴냈다.

'온 가족이 함께 읽는 동화'로 소개된 이번 창작집에는 '우리도 본받을래요', '꿈을 키우는 이발관', '춤추는 할아버지 지게' 등 표제작을 포함 9편이 실렸다. 이 작가는 "어린이들에게는 촉촉한 물기가 스미듯 메말라가는 정서에 고운 심성이 길러지길 바라며 어른들에게는 애틋하고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지아, 에스카가 동화 속 그림을 그렸다.

제주 서성환 목사 시집 출간

제주 사랑하는교회 서성환 담임목사가 시집 '너를 보듬고 나를 보듬고'(홍림 출판사)를 출간했다.

약 50편이 실린 이번 시집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들의 신산한 삶이 그려져있다. 인생의 성취와 열매들로 다 채울 수 없는 헛헛함, 외로움과 고독 앞에 서있는 인간 존재들이 읽힌다. CCM '승리'의 노랫말을 썼던 서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40대, 50대 남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다"며 "같은 상처, 같은 외로움에 놓인 이 시대 불혹과 지천명의 아담과 하와에게 보내는 위로의 노래"라고 했다.

금빛 선율 타고 소슬바람 불어올까

시민밴드 한라윈드앙상블
이달 7일 24회 팝스콘서트

금빛 선율에 소슬 바람이 실려온다. 제주 관악의 저변을 넓혀온 시민밴드 한라윈드앙상블(단장 정호규)이 준비한 '가을 찾아 떠나는 추억의 팝스' 음악회다.

이달 7일 오후 7시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빅밴드 '블랙스톤'과 한라윈드앙상블이 꾸민다. 스물네 번째 팝스콘서트로 시원한 금빛 음악으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무대로 기획됐다.

한라윈드앙상블 단원들로 구성된 빅밴드 '블랙스톤'은 '당신이 나를 보러 우리집에 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서머타임', '고엽', '스윙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등을 차례로 들려준다. 한라윈드앙상블은 '코파카바나', '보헤미안 랩소디', '라틴 팝스페셜', '튜바 뮤클'(솔로 김동진), '파리의 아메리카인' 등을 연주한다. 김승택·김우신씨가 지휘봉을 잡는다.

공연에 앞서 문예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로비 콘서트'가 마련된다. 단원들로 꾸려진 플루트앙상블, 클라리넷앙상블, 목관앙상블 연주가 잇따른다.

한라윈드앙상블은 1993년 창립한 관악 단체다. 전공자와 동호인들로 구성돼 지금까지 70회가 넘는 정기연주회를 갖는 등 빛깔있는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문의 064)751-1155. 진선희기자